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활동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경기도 0시 복지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 이윤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요약

□ 연구 목적

- 부모 단체에서 어떻게 참여형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탐색
- 다른 기관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복지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미친 영향 탐색
- 어떠한 경험이 부모로 하여금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직무 활동에 자발적으로 함께하게 했는지 탐색
- 타 시의 사례를 통해 O시 복지 일자리 사례는 어떤 특징적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청년 중증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
-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방안 탐색

□ 연구 방법

- 연구 절차 : 질적 사례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세부 절차 수립
- 사례 선정 :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복지 일자리 관련 사례
- 자료 수집 방법 : 심층 면담, 사진, 일정표, 기타 단체 활동 자료
- 자료 분석 방법 : 각 인터뷰 내용 등에서 주요한 맥락을 발견하고 의미의 단위를 묶어서 분석
-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 : 삼각검증법, 전문가 검증

□ 개선방안

- 기존 경증 장애인 청년들을 기준으로 한 채용에서 벗어나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증대
- 외곽에 위치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대신 도심의 생활 반경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제도화

□ 정책적 제언

- 경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업무 개발의 필요성
-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 혹은 직무사 등 보조 인력을 6개월 이상 지원의 필요성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분담 등 직무 체계 변화의 필요성
- 환경 미화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 시마다 다른 일자리 격차의 감소
-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일자리와 돌봄이 결합된 0시 복지 일자리 사례를 벤치마킹한 모델 개발 및 확대

목 차

Contents

I	서론 / 451	
	1. 연구의 배경	451
	2. 연구의 목적	453
II	이론적 배경 / 454	
	1. 발달장애인의 정의	454
	2. 경기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현황	454
III	연구 설계/ 459	
	1. 사례 선정	459
	2. 연구 절차	463
	3. 자료 수집	463
	4. 연구의 윤리성	465
IV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취업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 / 466	
	1. 청년기의 발달장애인	466
	2. 참여형 복지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474
	3. 타 시의 복지 일자리 사례	486
V	결론/ 488	
	1. 결론 및 시사점	488
	2. 개선방안 및 제언	489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91
	참고문헌 / 492	

표목차

Contents

〈표 1〉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경기도, 2022)	455
〈표 2〉 복지 일자리 업무 현황 (경기도, 2022)	456
〈표 3〉 0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활동 외 일정	461
〈표 4〉 0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참여자 부모	462
〈표 5〉 0시 복지 일자리 이해관계자	462
〈표 6〉 경기도 타 시 복지 일자리 사례	463
〈표 7〉 0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일정	479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 담배꽂초를 줍고 있는 청년 발달장애인	479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취업이 힘든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 중 취업은 부모가 죽음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장애인 자녀를 보호하지 못할 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매우 적은 수치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9.3%로,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은 28.1%, 지적장애인은 28%에 불과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 즉, 발달장애인의 10명 중 7명은 취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무고용제가 도입되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내는 것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다. 2020년 의무고용률은 정부 부문이 3%였고 민간기업은 2.91%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202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공공기관 고용부담금은 무려 800억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21). 일부 기업에서는 12월에만 장애인 채용 실적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단기 인턴으로 때우고 연초에 내보내기도 하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윤경, 2021).

발달장애인이 선택하는 직장 유형은 민간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로 나뉘어진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직업재활시설은 통상적으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된다.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곳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통해 최저임금의 20~30%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하민지, 2021; KBS, 2022). 근로사업장은 직업 능력은 있지만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다. 보호작업장과 달리 최저임금 이상을 제공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 생활 훈련 등의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켜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보호작업장 114개소, 근로사업장 14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3개소로 총 141개소가 있으며, 이용 장애인 수는 근로장애인 2,499명, 보호/훈련장애인 1,246명으로 총 3,745명이다(경기도, 2021). 이는 경기도 등록 장애인 57만8,668명의 약 0.6%에 해당하며 매우 적은 수치이다.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 사업 실시)를 근거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로 구분된다. 그 중 복지 일자리는 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계되어, 1~12월 총 12개월로 하루 5시간 이내,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진행하여 월 51만2,960원의 보수를 받는다(보건복지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환경 정리, 주차 단속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직업 생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참여형 일자리와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로 나누어지며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전공과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참여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되며, 2년까지만 참여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이상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O시 복지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취업 활동을 탐구하고자 한다. 부모 단체에서 어떻게 참여형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탐색하고, 다른 기관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험이 부모로 하여금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직무 활동에 자발적으로 함께하게 했는지, 타 시의 사례를 통해 O시 복지 일자리 사례는 어떤 특징적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청년 중증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O시의 복지 일자리 사례를 통해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가 개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돌봄과 일자리가 결합한 독특한 일자리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의 정의

통상적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일컫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 표현·자기 조절·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DSM-5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있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또는 활동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자주 동반되며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낮아야 한다(Donald, W. B., & Jon, E. G., 2018).

2. 경기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현황

2022년 기준 경기도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4,151명으로 경기도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55만7,843명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일자리 참여율은 1%도 되지 않는다(경기도, 2022). 경기도 중증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165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수를 합한 발달장애인 수는 1,397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약 36%에 해당하며(경기도복지재단, 2022), 경기도 전체 발달장애인 수인 56,450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표 1>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경기도, 2022)

구 분	사업량	사업 수행	근로시간	월 보수 (월 운영비)	근무 유형
복지 일자리	2,165명	시·군 및 장애인복지관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512천 원 (23천 원)	주차 단속, 사서 보조, 환경 도우미, 급식 보조 등
일반형 일자리	1,240명		1일 8시간 (40시간)	1,914천 원 (208천 원)	읍·면·동 등 행정 보조 및 장애인 일자리 수행 기관 등 복지 서비스 지원 요원
시간제 일자리	497명		1일 4시간 (20시간)	957천원 (112천원)	
일반형 일자리 (직접)	50명	도(40명), 경기도의료원(10명)	1일 8시간 (40시간)	2,328천 원 (239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직접)	120명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주 5일 (25시간)	1,199천 원 (153천 원)	경로당에서 어르신 무료 안마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79명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남양주시, 파주시	주 5일 (25시간)	1,199천 원 (155천 원)	요양보호사 업무 지원 (식사 돕기, 보행 돕기 등)

복지 일자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연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도 하루 5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 집중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다. 직업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보호작업장과 달리 9,160원의 최저임금을 주며, 일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으로 쉬고 공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가, 조퇴, 외출은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부득이한 경우 월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복지 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등급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했다.

<표 2> 복지 일자리 업무 현황 (경기도, 2022)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공익형	시장형
사무	사무 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문서 정리, 복사, 자료 작성, 집계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비영리 민간기관 등	사회적기업, 4대 보험 가입 민간기업 등
도서관 사서 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 날인, 색띠 부착, 라벨 부착, 도서 정리 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우편물 분류	동별·집배원별·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 분류, 반송 소인 확인, 소인 찍기, 작업장 정리 등)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 관리 보조 (동화 구연, 식사 보조, 놀이 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문서 파기	공공 및 민간 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 문서, 공장 입고 문서, 자체 문서 파기 등)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기업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사회 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사회 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활동 보조, 재활 치료 사업 등)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
실버 케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 (식사, 용변, 개인 위생, 이동 보행 서비스 등)	주단기보호시설, 경로당 등	민간요양시설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 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차량 승하차, 식사 지원, 양치 지원, 청소 등)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호텔 객실 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국공립 유스호스텔	호텔, 유스호스텔, 리조트, 펜션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공익형	시장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 단속 보조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	대형 마트, 백화점 등
기부 물품 관리	기부 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푸드은행, 푸드마켓 등	-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
급식 지원	단체 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 세척, 주방 및 홀 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 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민간기업
은행 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어린이 동화 구연	음성 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환경 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 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시·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역사회 공원, 학교, 사회복지관 등	-
버스 청결 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관공서, 학교 등 버스 운영 기관	운전면허학원, 민간 버스 차고지 등
캠핑장 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국공립 캠핑장	민간 캠핑장
재래시장 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정돈 등의 업무	-	재래시장
농업·임업·어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농업기술센터	-
교통 약자 승하차 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 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시·군·구청, 지역사회복지관 등	-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공익형	시장형
건강검진 센터 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 업무 및 검사실 이동, 병원 안내 업무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대형 서점 도서 정리	도서 라벨 부착 및 도서 정리 업무	-	민간서점
스포츠 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락커 키 불출, 회원 확인, 수건 정리 등)	국공립 실내수영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민간수영장, 민간 스포츠 이용시설 등
반려동물 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 (산책, 먹이 주기, 케이지 청소, 목욕 등)	유기동물보호소 등	펫카페, 펫호텔, 동물병원 등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 유지 업무 (장난감 소독, 종류별 작동 여부 확인 등)	국공립 장난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키즈카페 등
대형 마트 매장 정리 및 상품 관리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 정리, 상품 진열, 카트 정리, 온라인 주문 상품 포장 등의 업무	-	대형 마트, 지역 내 준대형 마트
공공 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시·군·구청, 공공 자전거 관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 자전거 관리센터 등

이처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시청, 학교, 복지관, 장애인기관에만 배치되어 실제 업무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2020). 대구에서는 위탁할 수행기관이 없어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음에도 복지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윤정훈, 2022).

III

연구 설계

1. 사례 선정

1) 0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1) 부모 단체가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게 된 이야기

0시는 복지 일자리를 장애인 부모 단체와 위탁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왜, 어떠한 이유로 장애인 부모 단체가 시와 위탁 협약하여 발달장애인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회: 발달장애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갈 곳이 없었어요. 주간보호시설은 3년 동안만 다닐 수 있고 대기를 해놓으면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애 특성과 개인 선호와 관계없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며, 강압적인 사회복지사와 공익위원들과의 갈등이 존재했었고 그럼에도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3년이라는 이용 기간이 끝나고 2년간 대기하면서 다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바리스타 교육, 치킨 봉투 접기 부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 활동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한 달에 2,000~5,000원 정도 받았다.

부모회: 자녀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시청 팀장님께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어요. 부모 연대가 1년 먼저 시작했는데 상추를 키워서 시청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 일자리로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다른 부모 단체에서 상추를 키우니 방울토마토를 키워서 파는 것을 할까 생각해봤지만 비닐하우스나 토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부업 활동으로 아이스팩 안에 미세한 가루를 넣는 활동을 해보았지만 여름에 에어컨을 켜 상태에서 가루 날림이 있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모가 함께해도 하루에 1,000원을 벌기 어려웠다고 한다. 고민하며 산책을 하던 중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민원 제기를 하게 되었고, 쓰레기 줍는 것은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어 참여인들이 본인이 하는 일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운동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게와 봉투를 지원받아 환경 미화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회: 일자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한 분만 지원받아서 5명이 진행했는데 한 분이 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경증 혹은 경계선 정도의 장애를 가져야 그나마 가능했어요. 중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들이 함께해서라도 중증 장애인들이 취업하여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회에서 운영한다면 부모회는 정말 갈 곳 없는 중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폭력성은 없어야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해요. 가능하면 엄마들이 함께했고, 안 되면 활동지원사들이 붙어서 함께했습니다.

처음 복지 일자리를 선발한 기준은 다른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타인을 때리는 도전적 행동은 없어야 한다. 2019년 5명으로 시작했던 복지 일자리는 다른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뽑았고 각자의 사연도 다양했다.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일자리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으면서 돈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조사하여 모집하였다.

부모회: 처음에 5명을 뽑을 때 다른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다른 엄마들과 참여자들을 때려서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타인을 때리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다른 참여인들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30만 원 물세를 써서 엄마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간 보호에 가도 하루를 못 버티고, 다른 곳에 가서 있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희귀병으로 얼굴에 흑이 생기고 피고름이 나면서 수술이 필요한데 돈 없어서 수술시켜주자고 하면서 일자리를 하게

되었고, 보호작업장에서 밥값을 내면서 오히려 돈을 내면서 일자리를 다니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오라고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일자리를 하면서 돈을 버니까 누나 학비 내준다고 하고, 고기 사먹을 거라고 말하며 돈을 번다는 의미를 알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 3시간 외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참여인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 일자리만 하면 갈 곳 없이 집에 일찍 가서 자녀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시에서 지원받아 ‘어울더울 예능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공예, 음악, 요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과 연계하여 핸드벨, 경제 수업을 하고 장애인체육회와 뉴스포츠를 하고 있다.

<표 3> 0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활동 외 일정

일	화	수	목	금
핸드벨 A: 13:00~13:50 B: 14:00~14:50	요리 11:30~12:30 음악 13:00~15:00	뉴스포츠 10:00~12:00 경제 수업 A: 13:00~13:50 B: 14:00~14:50	도예 10:00~12:00 미술 13:00~15:00	난타 13:00~14:00

부모회 : 처음에는 엄마들이 주간 보호처럼 2년씩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4명이 되었습니다. 1년에 2명씩 늘려달라고 시청 담당자에게 조르고 있어요. 주간 보호는 인력비 포함해서 3억9,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엄마들이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주간 보호만큼의 인원을 수용함에도 1억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요.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0시 장애인부모단체장에게 소개를 의뢰하여 선정하였다. 0시에서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 다른 일자리 경험이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은 참여인을 우선으로 6명에게 연락하였고 그 중 연구에 동의한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했다. 복지 일자리의 이해를 위해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 단체장 1명과 직무사 1명, O시 관계자 1명, O시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 1명이 이해관계자로서 보충적으로 참여했으며, 경기도 내 S시 장애인부모지회장, P시 어머니가 참여하여 타 시에서의 복지 일자리 사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2022년 5월 23일부터 7월 2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1) O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참여자 부모

<표 4> O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참여자 부모

구분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타 일자리 경력	복지 일자리 참여 경력
A	남	28	지적	한정된 단어로 욕구 표현, 타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함	전공과 2년+ 사회적기업 2년	4년
B	여	24	지적	짧은 대화 가능, 타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함	복지관 직업적응훈련 장 반나절	3년
C	남	22	지적	짧은 대화 가능,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전공과 2년	2년
D	남	22	지적·뇌 전증	의사소통 원활, 대중교통 혼자 이용 가능	전공과 2년	2년

(2) O시 복지 일자리 이해관계자

<표 5> O시 복지 일자리 이해관계자

종류	성별	경력	기타
부모회	여	복지 일자리 운영 4년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O시지부장, O시 복지 일자리 14명 발달장애인 관리 운영
직무사	여	3개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O지부 시 지원 직무 지도사
학부모	여	7년	O시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 O시지부장을 만날 때마다 복지 일자리 잘 유지해달라 고 말씀하셔서 인터뷰해볼 것을 권유받음.

(3) 경기도 타 시 복지 일자리 사례

〈표 6〉 경기도 타 시 복지 일자리 사례

종류	성별	기타
S	여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G지회장 S시 복지 일자리 운영 경험이 있음
P	여	P시에서 전공과를 통해 복지관에서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 일자리를 하고 있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어머니

2. 연구 절차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취업에서의 어머니의 개입을 중심으로 RISS를 통해 선행연구를 수집하였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계획하여 작성하였다. 5월 20일 1차 연구 자문 이후 연구 참여자 선정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복지 일자리 현장에서의 참여 관찰과 복지 일자리 활동 계획표, 프로그램 일정표 등 관련 질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맥락 안에서 참여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개방 코딩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초안 작성 후 중간 보고를 통해 연구에 대해 모르는 제3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결론 도출을 위한 내용 분석, 원자료 검토 등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3. 자료 수집

분석 자료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O지부장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문자를 통해 간단한 안내와 약속을 잡아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집 혹은 근무지 등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 일자리 참여인의 어머니인 연구 참여자와,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 단체장에게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려주세요”로 시작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고, 추가적으로 “복지 일자리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지 일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등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목적이 있는 대화로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험 제공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쓰이는 면담 유형이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2. “복지 일자리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복지 일자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직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복지 일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6. “복지 일자리를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7.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직무사와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직무사의 일과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토대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직무사의 일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3. “직무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직무사의 일을 하면서 복지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5. “직무사 역할에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6. “복지 일자리 사업에 건의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7.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다른 연구 참여자와는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복지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뒤, 내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여 내용을 확장하였다.

1인당 1회, 연구 참여자별로 50분에서 7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를 분석하며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문자 혹은 전화로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더불어, 복지 일자리 현장 방문을 통한 참여 관찰과 시간표 수집, 참여인의 일과 기록 등의 추가적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전사한 면담 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참여자 간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더욱 주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사례 연구의 과정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자연적으로 노출되고, 개인의 삶이 세밀하게 연구 결과에 반영되므로 연구 참여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연구 전에 자세히 알려주어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박희진, 2020). 연구자는 연구 윤리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 진행 전에 연구의 목적과 개인 정보 보호, 면담 녹음, 연구로부터 얻은 이익 등 연구 윤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연구 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특정 질문에 대해 원하지 않는 경우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담 내용 등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완료되면 폐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약속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드러나는 이야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유추가 가능할 수 있음에 대해 인지하고, 모든 정보는 익명화된 코드로서 알파벳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IV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취업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

1. 청년기의 발달장애인

1) 갈 곳 없는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전공과를 포함한 상급학교 진학을 높은 비중(48.3%)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전공과 진학조차 쉽지 않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 전공과는 2년 과정으로 경기도 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학교는 28개교이고 120학급이며 재학 중인 학생 수는 763명이다.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 6,762명 중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은 2,450명이며 약 36%에 불과하다(교육부, 2022). 2022년 2월 경기도 특수고등학교 졸업생 398명 중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은 126명으로 약 31%이며, 취업을 한 학생은 24명으로 그 중 21명이 비정규직이며 12명이 50만 원 미만의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0%인 241명이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또한 전공과를 이수한 343명 중 212명만 취업하였으며, 지원(연계) 고용 100명이 가장 많았고 보호 고용이 66명, 일반 고용은 4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중 127명은 비정규직이며 154명이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학부모: 그런데 굳이 왜 일반학교 특수학급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그냥 특수학교에 있는 애들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중략) 그럼 여기 특수학교에 있던 애들은 집으로 가는 거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일반학교 애들에게 밀리는 거고) 밀리니까 시험 봤는데 글씨도 써야 되고, 버스를 탔는데 내 집까지 찾아와야 되고. (중략)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럼 비율제로 반반을 갖든지 이렇게 해줘

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시험이야. (중략) 그래, 딸은 못 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애가 글씨를 알아, 뭘 알아.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글씨를 가르쳐본다고 치면 계속 낙서하고 앉았고 뭘 하겠어.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자기 이름만 쓰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면 내가 하겠어. 물론 안전하죠. 학교 안이라. 울타리 안이라.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애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복지 일자리가 없었을 때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미리 내가 예약 걸어야 되겠다 했지.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낮은 지적 수준 외에도 사회적 적응 능력의 결함이 포함된다. 그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스스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자기조절이 매우 힘들다.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있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을 추구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김지민·이병훈, 2021; 최민식·신현기, 2018; 윤민석, 2013; 심석순, 2015; 신빛나·이준우, 2014; 김수정, 2011). 이러한 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일자리 면접에서 신체장애 유형의 장애인·노인과의 경쟁에서 쉽지 않으며, 결국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D: 애들이, 아들도 어디 놀러 갈 때 애기 좀 해봐라. 뭐 소개하라. 이런 거 못하잖아, 쭈뼛거리고. 그러면 내가 보기엔, 면접이 있어서 못 볼 것 같은데. (중략) 다른 데 가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막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 모르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못하지. 다 떨어지지.

O시 복지관에서도 복지 일자리를 받아 발달장애인을 수용하였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각한 장애 정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 보기에 장애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거나 이해를 받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윤민석, 2013; 김진숙, 2015).

학부모: 부모회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지관은 절실하지 않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도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안 하는 이유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

공통적으로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소위 말하는 ‘기능이 좋은’ 경증(3급) 발달장애인만을 선호하며, 다른 장애인 일자리도 중증발달장애인은 배제한 채용능력을 갖춘 경증 장애인 청년들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학부모: 일자리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에티켓인가 그 강의를 할 때, 복지 일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종류는 되게 많았는데 0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복지 일자리는 이거(환경 미화)였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왜 그 많은 것 중에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데, (어느 시에서 뭘 하고 있고, 어느 시에서 뭘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일하고 있는 애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지? 이게 또 궁금했어요.

복지 일자리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 보조, 관공서 안내, 주차 보조, 도서관 책 정리 등 사무나 서비스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 참여인은 당연히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며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보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B: 요양보호사에서 하면 모든 처리가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딱 끼워주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 그러면 딱 끼워주고 뒹그러도 잘 돼야 할 테고. 그런 거를 따진다면 본인 스스로도 신변 처리까지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것까지 케어가 될 수 있을까? (중략) 진짜 중증은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만들어준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걸 한다면 정말 경증 위주의 사례가 아닐까?

2022년 새롭게 신설된 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 일자리로, 전공과는 취업을 위한 훈련 목적으로 대부분 수행이 가능한 경증 위주의 장애인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다. 전공과를 다니는 것도

안전하게 다닐 곳이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특혜인데, 복지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중증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D: 너무 양쪽으로 혜택을 주는 거잖아. 솔직히 전공과까지 다니면서. (중략)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거 애네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나 복지 일자리의 다양한 업무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그저 장애인의 고용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구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Graham, L., & Slee, R., 2008). 정부는 ‘어떻게’ 중증발달장애인이 일자리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로 기능적 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편견이나 부정적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는 상황적 맥락이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경증 장애인 청년들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과, 일자리 현장에서 경증 장애인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경증 장애인 중심에서 중증 장애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그 일부를 채워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길 원하며, 중증을 위한 일자리가 증대되길 바라고 있다.

C: 중증을 위한 일자리가 좀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정말 계속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부모가, 좀 누군가가... 부모가 힘이 되어주면 변화가 생기니까.

2) 강압적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2022).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화 혹은 내방 상담 → 초기 상담 → 입시 이용 기간 → 입소 판정 회의 → 입소 확정 → 센터 이용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초기 상담이라는 면담을 통해 통제가 어려운 최종증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임시 이용 기간을 통해 행동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여 돌보기 쉬운 장애인만 수용한다. 2016년에 실시한 부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 조사에 의하면 시설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 ‘장애 유형, 신변 자립, 공격성, 관찰 기록’ 등을 80% 이상 고려하고, 행동 문제로 이용이 종결된 비율은 1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권경만, 2019).

센터에서의 행동 교정이나 교육 대신 부모에게 연락하여 이용인의 행동을 매일 전화로 이야기하며 행동을 통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갈 곳이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를 억제해서라도 다니게 하려 했고, 갈등은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눈의 핏줄이 터지는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났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이 행동 문제를 가진 중증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행동 중재,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고, 행동 문제 이해 및 개입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권경만, 2019).

B: 딸이 되게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그걸 많이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좀 가만히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서서 하는 것보다 아이가 성향이 약간 활동적이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면 서서히 이거를 조절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늘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따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니까 내가 또 딸한테 센터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애가 조금 더 못 버틴 거 아닌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특별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2022).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때우기’식 단순 돌봄 위주의 소극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반복 운영되고 있다(권경만, 2019).

B: 프로그램이 돌아갔었지. 실내에서 하는 수업이야. 난타, 요가,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회장님하고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교실에서 TV로 영화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을 영화관으로 좀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안 되나? 그랬더니 예전에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센터에서 밥 먹고 프로그램 하고... 그외에는 밖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너무 답답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학점 이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익요원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어 이용자의 문제 행동 발생 시 대응하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회 :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익요원과 갈등이 있었어요. 한 친구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데려가는데, 시끄러워서 손을 뿌리치며 짜증을 냈고 공익요원이 말리다가 밑에 깔려서 다리 인대가 부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로 인해 생긴 일이니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회복지사의 전화에 30만 원을 주게 되었고, 그 공익요원은 비슷한 일에 돈을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사회복지사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욕구를 수용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끌려다녀야 했고, 시끄러운 아이들과 강요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말을 안 들으면 손을 뒤로 꺾는 선생님의 폭력도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오전 11시에 가서 오후만 있다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낼 곳이 없어서 (3년 동안) 다녔고, 그 후에는 대기해야 했습니다.

3) 돈을 내면서 일해야 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과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단순 작업 활동을 훈련하여 더 나은 직업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훈련과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단순 조립, 마스크 혹은 양말 개기, 박스 접기 등의 단순 반복 작업 형태를 띠고 있어 시간이 아닌 작업량으로 산정되어 보수가 매우 적다. 오히려 식사비나 이용료가 더 많아서 돈을 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A는 자녀가 장애 1급으로 중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겨우

사정하여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한 달에 4~5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를 보수로 받았고 따로 이용료를 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딘가를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A: 양말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애들을 잘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 여기에는 두 가지. 첫째, 사무실처럼 해가지고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둘째, 공장이 또 따로 있어. 교육장과 공장. 그러니까 교육장에서는 양말이란 전자 부품 조립, 티슈 화장지가 주력이었는데, 교육장에서 그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고 오전 시간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 지나면 또 체력 시간 있어. 체력 시간 지나서 또 좀 일하다가 오후 5시 되면 집에 오는데... 교육장에서 3년 버티면 정직원으로 공장으로 넘어가는 거지. (중략) 여기는 1만 원만 내면... 이용료라고 보면 돼. 이용료가 있어. (중략) 월급은... 애가 3년 다녔잖아요. 통장이 좀 봐야 돼. 나도 한푼도 안 꺼냈거든. 근데 많지는 않아. 한 달에 4~5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한 달 4~5만 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장애 자녀가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게 될 때 돌봄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돌봄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 일을 지속하지 못할 위험을 가지게 된다. 하루 종일 독박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은 월급은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약 20만 원의 주간보호시설 이용료와 달리 1~2만 원의 적은 이용료 혹은 6~7만 원의 식사비만을 내고 일정 시간 청년 발달장애인들을 보낼 곳이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즉, 어머니들은 직업 혹은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돌봄을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직업 훈련 쪽이었어. 그래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여기서 훈련 때는 뭘 하나면 마스크 팩이나 그런 걸 포장해. 조금 능숙하게 잘 되는 애들은 취업을 시켜준다고 했던 것 같아. 단순 조립도 있다고 했는데 딸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반나절 만에 그만두고 나온 거지. 그다음에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다시 보낼 수도 없었고. (중략) 조금씩 준다는 애기는 들은 것 같기도 해. 점심값을 달라고 해서 점심 식대를 몇 만 원 드렸던 것 같아. 그외에는 특별히 내가 들어간 게 없고. 그 대신 애를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어.

4) 너무 멀고 외진 곳에 위치한 장애인 근로작업장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공과 혹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추천받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멀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복잡하여 중증발달장애인 청년들이 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머니가 매일 왔다갔다하며 출퇴근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C: 멀어서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선생님도 팔탄면 쪽에... 그걸 누가 케어하냐고 일반 회사는 경계선에 있는 애들. 혼자서 버스 타고 다 할 줄 아는 애들. 집 못 찾아도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재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걱정되는 게, 버스를 탔는데 지나쳤어. 그러면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든. 근데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2급 애들은 힘들어.

D: 외부에서 취업 연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O시 시내도 아니고 취업시킨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직장이 되게 멀어. 다 외곽이야. 내가 차가 있어서 개를 맨날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딱 잘라서 안 보내겠다고 얘기했지.

A는 근로작업장에서 정직원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으며,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훈련하던 단순 작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티슈 공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연계된 공장에 다니더라도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A: 교육장은 병점에 있고 공장은 정남에 있는 거였어. (중략) 그러니까 티슈 쪽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공장을 더 크게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크잖아, 화장지는. 막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전자동으로 시스템을 돌리는 체계화된 양말 공장에서 3년간 일하던 애들이 거기서 일하기가 힘든 거야. 그 공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교육장에 있어야 되겠다...

2. 참여형 복지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1) 복지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

(1) 다른 장애인의 사례를 통한 간접 체험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무리에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소외를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을 특수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통합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아 그룹에서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과 마주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상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혼자가 된다. 통합은 아이에게 남과 나의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있어야 하는 위협을 무릅쓰게 한다(시몬느 소스, 2016).

어머니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혼자 혹은 소수로 일하는 일반 회사나 일자리보다는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일자리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정당성을 가지며 장애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주류’가 된다. 그 공간에 비장애인이 들어올 경우 그 비장애인이 오히려 비주류, 즉 ‘이방인’이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전혀 다르지 않게 대하는 것은 장애인을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장애인은 매 순간 장애가 없는 척해야 하며 장애를 숨기려고 노력하거나 장애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시몬느 소스, 2016, 61쪽).

Equality(평등)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출발선에 놓는 것이다. C의 이야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게 동일한 월급과 근무조건으로 동일한 출발선에 올려놓았으니 평등에 해당할 것이다. 동일하게 제공한 만큼의 혜택을 주었음에도 그 몫을 못하자 비장애 직원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발달장애인은 소외당하고 말았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잣대로 업무 역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같은 목표와

직무라는 동일한 업무적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성과주의·결과주의와 같이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의 영향으로 인한 기능 위주의 시스템에 익숙한 탓이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능력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김창엽 외, 2002). 업무 환경은 장애인의 개성과 능력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quity(형평)는 각 학생에게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같은 종착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C는 결국 근무시간을 발달장애인이 집중할 수 있는 4시간으로 줄이고 나서야 직원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발달장애인의 부담도 적어져 모두 괜찮아졌다고 밝혔다.

C: (중략) L마트 건품장에 남자 하나 있고 우리 OO이도 있는데, 그 직원은 후천적으로 지적장애가 약간 있는데, 느리고 부족하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8시간을 충분히 소화해내. 그런 사람들은 괜찮더라고, 일반 직장이지. 진짜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4시간짜리 일자리가 많아야 돼. 딱 집중력 4시간이야. 재미있게 와서 재미있게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왜냐면 일반인들 속에서 우리 애들이 섞이지 못해. (중략) 월 하나 주면 성과를 냈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어. 근데 그 기대치를 못 내니까, OO이는. 우리랑 똑같은 시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알미운 거야, OO이가. 월급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자기 일을 못 해내니까 더 자꾸 왕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은 (같은 장애인이 있는) 집단에 들어가야 돼.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어울리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못 이겨내. 애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중략)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붙어서 재를 케어해야 돼. (중략) (지적)장애인들이 일반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상호작용이 어렵고 내 고집만 부리고 그래서 그래. (일반 회사 취업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인터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다른 발달장애인의 사례도 인용하였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커뮤니티가 발전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특정 일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작업장이 일반 공장과 같은 환경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들이 많으며 생산과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것이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회: □□가 근로작업장으로 휴지 공장 다니다가 트럭이 밀어서 (발이) 다 부서졌잖아. 팔 부러졌고. (중략) □□이도 그래서 안 간 거야. 개 엄마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보내고 싶은데. □□이가 상태가 좋잖아. 일하던 옆 공장에서도, 휴지공장에서 오라는 데 안 가는 거거든.

C: □□이도 거기 갔다가 나왔잖아. (중략)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다니깐요. 왜냐하면 □□이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모든 업무를 소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근데 막상 시키면 다치고 주의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2) 복지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유

복지 일자리를 선택한 요인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상처나 스트레스에 의해 실망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과, 성과 위주의 직무 역량 요구, 장애로 인한 부적응,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관의 편견과 차별이 언급되었다. 복지 일자리는 단순 작업을 진행하며 엄마가 봉사하여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 딸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해야 한다든지 누구랑 대화하면서 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좁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게 몇 시간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줄 필요 없이 한번 보여주면 애가 주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 일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봉사하며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참여인들의 욕구 파악과 의사소통, 시간 및 일정 관리 등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C: 지금 복지 일자리가 잘되고 있는 이유가 엄마들이 거의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엄마들이 붙어서 적극적으로 케어하면서 도와줘서. 아마 다 도우미들이 한다고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야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따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억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돌봄과 일자리가 결합한 형태로 자녀를 돌보면서 습득한 높은 장애 이해도를 가지고 업무 환경을 맞춤형으로 조성한다.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일 때 일할 수 있도록, 즉 아침형 참여인들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며, 밤에 늦게 자거나 잠이 많은 올빼미형 참여인들은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한다. 하루 5시간 이내,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 일정이나 컨디션에 따라 조정하여 근무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져 표현이 많아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B: 복지 일자리 다니면서 그때부터 천천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잘 따라오는 것 같아. (중략) 어릴 때 아무리 치료실을 그렇게 다녀도 자기표현이 안 되고 이랬는데. (웃음)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들었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또 건강해졌잖아. 매일매일 걸어다니다 보니까 자세도 꼳꼳해지고.

외곽에 위치한 다른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달리 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탈시설로 인해 부모가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해 돌봄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장애인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일하는 것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 외곽에 위치한 근로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혐오시설로 분리되어 밀려났다는 느낌을 준다. C는 전공과에서 연계한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거의 없으며 활동지원사도 너무 멀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청년이 근로작업장에 다니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C: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가깝잖아요. 시내에 있으니까. 근데 작업장에 가면 멀고, 누가 출퇴근을 시켜요? 활동지원사들도 그런 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여인들의 수당은 어머니들이 일하여 얻는 것보다 많지 않지만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 자녀를 맡기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나 집에서의 고립된 돌봄을 위한 노동을 생각하면 어차피 해야 하는 돌봄을 위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함께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일정하게 덜어주며 청년인 장애 자녀가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만족감과 성취감, 자립을 위한 희망을 얻기도 한다.

D: 맨날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 떨쳐 놓을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그런 기회(국립대학교 전액 장학금 입학)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하지 않을까.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자기관리를 못할 것 같은데. (중략) 시내에서는 스스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벗어나면 자신감이 없어 하지. 어제도 봐봐. 만약에 자기가 경제 수업을 오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지가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쭈뼛쭈뼛하는 거 봐. 못하잖아, 표현을. 근데 외부에 나가서 만약에 좀 말투도 단호하고 좀 약간 다그친다 이러면 우리 애들은 쫄잖아. 더 못하잖아. 그런 상황을 재가 (대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못 내보내는 거지. 여기서서는 괜찮은데. (중략) 그리고 나는 혼자 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엄마도 같이 와서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힐링이야.

2)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

(1) 환경과 건강을 챙기는 청년들

복지 일자리 업무로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미화 활동은 요즘 유행하는 줍깅, 플로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을 합친 합성어이며,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조깅)이 합쳐져 생긴 합성어이다. 쓰레기를 줍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 자세와 비슷하여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다(네이버지식백과, 2021).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주우면

서 목적지까지 가볍게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걸어서 10분 거리의 하천, 도서관, 동네 주변에서 활동한다. 단체 조끼를 입고 일회용 쓰레기봉투 대신 물건 살 때 받은 쇼핑백과 집게, 개인 장갑과 모자 등을 챙겨간다.

<표 7> 0시 참여형 복지 일자리 일정

시간	활동 내용
9시 30분 / 1시 30분	출근
	어제 한 일 공유 / 일기 쓰기 / 화장실
10시 / 2시	환경 미화 활동 (공원 / 복지관 / 도서관 근처)
11시 30분 / 3시 30분	손 씻기 / 집게, 조끼 정리 자율 활동 (색칠하기, 점선 긋기, 한글 쓰기)
12시 30분 / 4시 30분	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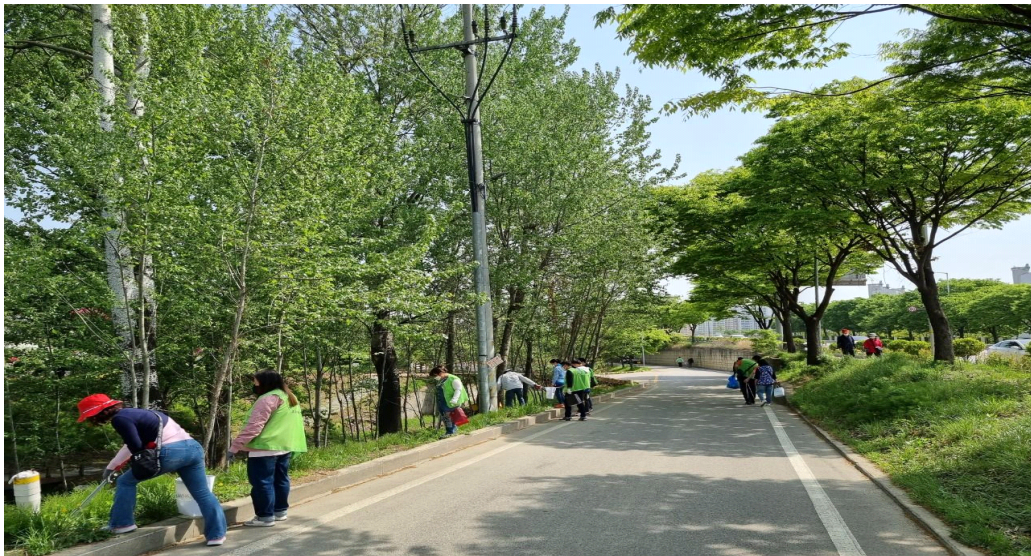
[그림 1] 담배꽂초를 줍고 있는 청년 발달장애인



함께 모여서 쓰레기를 주우며 걷고, 개인 봉투를 채우면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는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 매일 50L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우고 있다. D는 자녀와 쓰레기 줍는 일을 하다 보니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눈에 더 잘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아들이 주워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절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회 사무실에서는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만드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종이컵을 없애고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청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회: 참여인들과 엄마들까지 모두 사용하는 종이컵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박스를 한 달이면 다 쓸 정도였어요.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고민하던 차에 딸이 우수 봉사자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머그컵이 선물로 온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종이컵을 없애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참여인들과 근무자들, 자주 오는 사람들 이름을 새긴 개인 머그컵을 기부해줬어요. 애들이 내 이름을 찾아서 꼭 그 컵에 물 마시고 이름 찾는 재미를 느끼고 엄청 좋아해요.



G는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집 안에만 있던 과거와 달리, 복지 일자리로서 플로깅 활동을 하는 청년 발달장애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주 노출되어 직접

보고 겪으면서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 인식하고 편견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회: 길거리를 다니며 환경 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일부 시민들은 고맙다고 인사 해요. 일부는 저기 더러운니까 치우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래도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체 조끼 입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꾸준히 쓰레기 주우며 활동하니까 처음에는 쳐다보는 것 같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든 느낌이에요. 계속 하다보니 관내 신문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락 와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2) 환경 미화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환경 미화’는 공공 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청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 생활환경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다(충청뉴스라인, 2020).

환경 미화 활동은 흔히 말하는 3D 업종 중 더럽다(Dirty)에 해당하는 기피 업무로 생각되며 사회적으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 어머니들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피하면서 바리스타와 같은 ‘고급진’ 활동을 추구하게 한다.

G: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매일 커피 따고 있을 거예요? 커피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이거(바리스타 자격증) 가지고 가서 뭐 할 수 있을 그것도 안 돼. 계산도 안 돼. 계산되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거(환경 미화)는 나의 모든 스킬이 딱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운동도 되니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몇조죠. 근데 그거는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처음에 복지 일자리에 합격해서 여기 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내 애가 쓰레기 주우러 간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지 일자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알리고 동참하게 해야죠.

C에게 말한 사람들은 환경 미화 활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고, B의 경험은 타인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불쌍하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 미화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회: C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환경 미화 한다고 했더니 그런 걸 어떻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냐는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동네를 돌아 보면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면서 음료수를 주셨어요. 그래요? B가 시험에 들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우리를 불쌍하게 봤다고.

연구자: 저도 참여인들과 함께 들고 있으면 동네에 초등학교 되게 많잖아요. 애들이 와서 “환경미화원이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봉사하는 거야.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언니, 오빠들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너도 쓰레기 버리지 말고” 그래요. 근데 그 말들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생각하니까.

직무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부의 시선 또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으며,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를 순화하여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무사: 아이들한테 이왕이면 “우리는 환경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너 공부 안 하면 쓰레기 주워야 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내 일자리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자리에 참여하고 직장처럼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를 항상 부각시켜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살았다. 직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거를 자주 강조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해줘요. 아침에 왔을 때 플로깅 설명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동 보조 선생님이 더 많이 하니까...

D: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 한 번은 다 들고서 맑음터(0하천)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난 거야. 엄마인 나는 이제 약간 좀 그랬어. 애는 반가워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반갑다고 그래. 내가 민망할 정도

로. 애는 그런 게 괜찮은가 봐. 남편한테 물어봤어. “아들이 나가서 쓰레기 줍고 그러는 걸 어떻게 생각해? 창피해?” 그랬더니 남편은 안 그렇대. 좋대. 운동하면서, 걸어나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나쁘냐.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래. 집에서 내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돈도 벌고.

환경 미화 활동을 “우리”가 선택했으며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일자리와 배움이 한 곳에서

O시 복지 일자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3시간씩, 금요일에는 2시간 근무한다. 학교와 방과 후 치료실을 다니는 학령기와 달리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적 혹은 교육적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일정이 없다. 많은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교육 중단과 고립으로 퇴화를 경험하고 있다. B는 일자리 이후의 프로그램 운영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로 매일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를 다니면서 구사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거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참여인도 있으며, 사회성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B: 오전에 12시 반까지 하고 가.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애들 다 집에만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뭐하게. 게임이나 하고. 나도 그걸 해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회장님한테 얘기한 거야. (중략) 프로그램 안 하면 다 집에만 있는 거잖아. 내 눈에 뵈히 보이는 거야. 다들 집에서만 있으면서 TV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프로그램 돌리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

학부모: 3시간 일하고 돈 받으면서 낮시간에 여러 가지 배우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략) 데이(Day) 서비스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돈 주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오전반은 오후에 가서 또 뭔가 배우고, 오후반은 오전에 먹는 걸 배우고 너무 좋잖아. 나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복

지 일자리랑 어울더울이랑 연결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B: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지. 지금은 한 3년이나 지났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전에는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흥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고 어렵다고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참여하지.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분위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학습 분위기를 좀 아는 것 같아서 조금 의젓해졌다고 해야 되나. (중략) 너무 좋지. 건강해지고 치료실 다닐 때보다 아이가 더 좋아졌으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2만5,000~3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동일한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어, 중증발달장애인을 가르치고자 하는 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정된 강사비에도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어렵게 외부 강사를 구해도 소근육이 약하고 인지 능력이 낮은 다수의 장애인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어머니들이 보조 인력으로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직무사: 우리 부모의 현재 시스템이 복지관의 시스템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몇 가지는 좀 부족해요.

4) 언제라도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함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하며, 2년까지만 참여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이상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으며,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뽑아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

C: 아들의 복지 일자리가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계약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1년치 계약이고 또 언제까지 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면서도 불안하지. (중략) 난 복지 일자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1년씩 계약하고 내년에 또 계약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딱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좀 장기간 보장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어머니들은 일자리를 지속하길 희망하였지만 1년 단위의 계약 형태와 많은 수요로 인한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5년 혹은 10년의 기간 보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B: 내 아이만 생각한다면 계속하고 싶고, 밑에서 동생들이 들어오니깐 조금 더 양보해야 하는 마음도 있고, 그거는 참 미묘한 것 같아요. (중략) 친구나 선생님도 한 3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친해지고 엄마들과도 관계가 좋아지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 3개월에서 6개월, 빠르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좀 친해지는 데 길게 잡으면 1년, 서로 좀 잘 알고 편해지려면 1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2~3년은 해야 되지 않나. 욕심을 키운다면 5년도 괜찮겠지, 보장이 된다면.

D: 나는 대만족이야. 그래서 이게 쪽 갔으면 좋겠어. 진짜 10년 보장은 너무 긴가? 한 5년? 5년 동안은 생각 없이 계속 다닐 거 아니야. (중략) 근데 그 뒤에 애들도 있잖아. 졸업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 나만 그런가?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런가? (중략) 다음에 들어올 애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미안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딱 명시해서 3년? 5년? 그러면 그동안은 미안할 게 없는 거잖아. 내가 딱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학부모: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거고, 발달장애인들이 워낙 많아서 한 5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도 계속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 타 시의 복지 일자리 사례

S시는 복지 일자리 인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인력은 부모회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활동을 했고 사무실에서 청소, 문서 파쇄 등의 간단한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사무실에서 참여형 복지 일자리로 1명의 발달장애인 인력을 지원받았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S지회에서 참여형 복지 일자리 50명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손이 더 많이 가서 힘들었다고 한다. 더구나 S시는 기업이 많아 일자리 공급이 많으며 후원을 통한 스포츠 활동 등의 업무 영역이 다양하여 선택지가 많다. 앉아서 작은 일이라도 수행할 수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 도전적 행동을 하거나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중증과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데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S: S시 지부장 할 때 발달장애인들만 모아서 복지 일자리만 따로 운영했었지. 그래서 O시에서 복지 일자리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제 와서 복지 일자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점은 우리는 경증 위주로 운영했어. 처음에는 면접 없이 주민센터에 서류를 내면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장애 정도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 직원 없이 발달장애인만 복지 일자리로 주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증 위주로 받고 일부 엄마들이 봉사하는 형태로 운영했어. 엄마들끼리 너무 힘들어 전일제 인력을 지원 받았어. 수탁받은 건 아니고 O시처럼 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형태였어. 지금은 경증 장애인은 대부분 기업에서 후원하는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그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일도 덜 힘들어서 다 그거 하고 있지. 수원은 일자리가 잘 되어서 단순 작업도 조금만 가능하면 기업 후원을 받고 다 취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지. 앉아 물건 옮기는 것만 가능하면 S시는 다 취업을 하는데, 결국 중증과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수용이 안 되어서 문제지.

P는 아들이 21세로 1급 중증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다. P시에 있는 사립 특수학교에서 전공과를 하고 있다. 추가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합격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2회 화·목요일에 복지관으로 복지 일자리를 하러 가고, 3회 월·수·금에는 학교에 간다. 일자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도서관 책 분류, 분리수거, 조립 등을 한다. 조립할 때는 ‘내 몫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연습하고 오라는 숙제

가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아 있는 일이 많아서 못 앉아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잘 다니고 있다. 일자리에서 할 것을 미리 집에서 연습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특수교사가 일자리 관련 연습을 시켜주고 어떻게 집에서 연습할지 알려주고 있다.

P는 아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아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며 작은 것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현재 복지 일자리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 타인들의 부정적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던 곳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계속 노출시키면서 이겨내는 것을 답으로 찾았다. 태어난 곳에서 살면서 일반학교를 다녔고 계속 자녀와 함께 돌아다니는 덕분(?)에 시민들로 하여금 아들을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고 익숙해지게 하였다. 아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못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생기기도 했는데, P는 자녀의 특성에 따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와 반복하기, 정신적 나이에 맞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P: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잘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찾도록 노력했어요. 쓰레기를 줍고 신문을 낱씨별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을 잘했어요. 쓰레기를 손으로 주워도 더럽다고 안 하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 것 없는 작은 일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연결되어 특기를 살려 잘하고 있습니다. (중략) 왜 이리 산만하냐? 애가 돌아다니고 잃어버릴 거면 집에만 있으라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아들을 계속 노출시키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중략) 아들이 못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생기기도 했어요. 보통 무언가를 가르칠 때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데, 아들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도 색깔 스티커를 붙여서 좋아하는 노래를 치도록 했어요. 교육적 접근을 공동체 안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멈추면 퇴화될 것 같아서 계속 정신적 나이에 맞게 교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V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모 단체와 부모가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운영에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함께하게 하였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중증발달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한계와 편견 같은 부정적 경험을 통해 상황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었다.

청년기는 대부분이 취업하여 직업을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 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청년기가 되어도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 으며, 특히 어머니들은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

0시 복지 일자리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들의 참여’였다. ‘절실’했기에 할 수 있었고, 타 기관처럼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 에 따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억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돌봄과 일자리 가 결합한 형태로 자녀를 돌보면서 습득한 높은 장애 이해도를 가지고 업무 환경을 맞 춤형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들의 봉사료 인건비도 줄어들었다. 주간보호시설과 비슷 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통적으로 전공과를 비롯한 직업훈련센터,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이 취업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역할을 하는 곳조차 암전하고 수행 능력이 있는 경증 발달장애인 만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위 ‘기능이 좋은’ 경증 장애인 청년들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다른 발달장애인의 사례도 인용하였는데, 이는 어머니 들의 커뮤니티가 발전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특정 일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타 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시는 기업이 많아 취업할 곳이 많으며 장애인의 특기를 살려 예술·스포츠로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P시는 복지 일자리-특수 교육 연계형으로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P시 또한 기업이 많아 스포츠로 후원을 받기도 하고 기업에서 자금을 후원받아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2. 개선방안 및 제언

무엇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나 복지 일자리의 다양한 업무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그저 장애인의 고용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구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Graham, L., & Slee, R., 2008). 정부는 ‘어떻게’ 중증발달장애인이 일자리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로 기능적 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경증 장애인 위주의 일자리 패러다임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는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O시에서는 부모 단체가 참여형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환경 미화 활동을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타 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중증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복지 일자리의 대부분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무 업무이거나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 업무로서 중증발달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능력 있는’ 경증 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중증 장애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어머니들이 그 일부를 채워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환경 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였고, 일부 참여인의 어머니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직무사는 20, 30대의 청년들에게 쓰레기를 줍게 하는 것보다 참여인들을 나누어 차별화된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양한 수준의 참여인들에게 우수한 참여인을 기준으로 업무를 선정하거나 참여인들을 나누어 분리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경쟁적 사고를 부추기며 패배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하나의 업무 안에서 개별화된 지원을 통해 우월감과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의

역량에 따라 맡는 영역을 달리하여 시너지를 추구하는 하나의 업무가 필요하다. 경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 회사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채용하고 혜택을 주었음에도 그 몫을 못하여 직원들이 불공평하게 생각한 나머지 발달장애인이 소외되기도 했고, 근로작업장이 일반 공장과 동일하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들이 많으며 생산과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동일한 목표와 직무를 맡기는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성과주의·결과주의처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의 영향으로 인한 기능 위주의 시스템에 익숙한 탓이다.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 혹은 직무사를 6개월 이상 제공하는 등의 보조 인력 지원 혹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분담 등 직무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증발달장애인의 어머니들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홀로 혹은 소수로 일하는 일반 회사나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자리보다는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청년발달장애인이 외곽에서 분리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생활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매스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희화화된 모습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 고통스럽고 결핍적인 부정적인 이미지(서진·이수영, 2022; 문찬수·박정하·이혜나, 2012)와, 장애인을 무조건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0시의 복지 일자리는 지원 인력의 한계로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어머니들이 직무 활동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 돌봄과 일자리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무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개선되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0시의 복지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증 장애인 위주의 일자리 공급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갈 곳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 단체에서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고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취업 활동을 위한 어머니들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들은 청년 중증발달장애인 자녀가 갈 곳이 없고 타인이 자녀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없기에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 장애 자녀의 취업 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발달장애인의 취업이라는 현상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취업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실시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질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연구자가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입장에서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년 중증발달장애인의 취업 활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개입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여 질적 연구에는 적합하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발달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과,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할 때 한 가족으로서 다소 내부자적 입장에서 주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연구를 작성했다는 점은 한계점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 (2020). 직업재활시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6&bIdx=81694&page=1&menuId=1884&bcIdx=0>
- 경기도. (2021). 장애인 등록 현황.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05&menuId=1880#page=1>
- 경기도. (2022). 2022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현황.
https://www.gg.go.kr/opendata/openDataContent.do?gg_content_idx=7773&decodeIdx=5068
- 경기복지재단(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 유형별 집계 현황.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30DI2CM94AVD0M3MOKRU26189272&infSeq=1>
- 고용노동부. (20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www.kosis.kr
- 교육부. (2022). 2022 특수교육통계.
http://www.nise.go.kr/ebook/site/20220705_09120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1.28.).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2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604&lsNm=%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1230&bylEfYdYn=Y>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7.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800억 원 예산으로 납부 꼼수 행정” 적발.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760&nPage=

- 김수정. (2011). 자립 초기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3(4), 149-174.
- 김지민, 이병훈. (2021). 청년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어머니의 개입 활동. 한국사회 정책, 28(1), 191-223.
- 김진숙. (2015).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 김창엽, 정근식, 오츠틀루 타다시, 김선민, 유동철, 김정열, 권선진, 김형수, 신영전, 정도상, 허태자, 박영희, 안은자, 김은정. (2002).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서울: 삼인.
- 권경만. (201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21). 플로깅.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38665&cid=43667&categoryId=43667> (2022.09.01. 검색)
- 늘푸른 행정사. (20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 기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a0123&logNo=221664079080> (2022.07.26. 검색)
- 문찬수, 박정하, 이해나. (2012).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25(2), 1-21.
- 박희진. (2020). 기독교 대안학교 '쉐마스쿨'을 일군 엄마 교사들의 공동체 학습 경험 사례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202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https://www.129.go.kr/faq/faq05_view.jsp?n=1561
- 보건복지부. (2022). 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4&PAGE=4&topTitle=
- 서진, 이수영. (2022). #장애인도_살아있다: 미디어 속 장애인, 왜곡되고 지워져.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773>
- 신빛나, 이준우 (2014).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지. 장애와 고용, 24(3), 35-66.
- 심석순. (201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

- 인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 187-218.
- 양윤경. (2021).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올해만 800억 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90101_34936.html
 (2022.07.07. 검색)
- 이혜경. (2012).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2(2). 117-138.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개정판). 서울: 박영스토리.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정책리포트. 154. 1-17.
- 윤정훈. (2022). ‘잘 할 수 있는데...’ 취업시장서 외면당하는 발달장애인들.
<http://mnews.imaail.com/page/view/2022010410011132118>
- 충청뉴스라인. (2020). 환경 미화는 사회의 가장 큰 공적 서비스, 이미 정해진 법률부터 준수해야. <http://www.ccnewsline.co.kr>
- 최고운. (2021). ‘징검다리교실’ 사례를 통해 본 학습공간 공유형 지역학습공동체 성장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식, 신현기. (2018). 발달장애인 부모와 고용주의 취업 준비 및 고용 유지에 관한 인식 비교. 지적장애연구. 20(4). 25-53.
- 하민지. (2021). 또다시 드러난 열악한 보호작업장 실태, “최저임금법 7조 폐지돼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5>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개요.
https://www.koddi.or.kr/service/work_intro.jsp (2022.06.22. 검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a). 2021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조사통계연구 202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b). 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조사통계연구 2021-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c). 2021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조사통계연구 202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헬로! 서울경인. (2019). “고생 끝에 취업해도”...여전히 갈 길 먼 발달장애인 일자리.
<https://www.youtube.com/watch?v=58xdbz3LBKY> (2022.06.13. 검색)

- Donald, W. B., & Jon, E. G. (2018). DSM-5 가이드북. [DSM-5® Guidebook: The Essential Companion to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강진령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4년 출판)
- Graham, L., & Slee, R. (2008). An illusory interiority: interrogating the discourse/s of inclus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0(2), 277-293.
- KBS. (2022.04.20.). “중증장애인은 취업도 못하나요?” 장애인 고용률은 1%대. <https://www.youtube.com/watch?v=birPj-aBXvI> (2022.07.02. 검색)
- Simone Sausse. (2016). 시선의 폭력: 편견사회에서 장애인권 바로보기. [*Le Miroir brisé: L'enfant handicapé, sa famille et le psychanalyste*]. 김현아 역. 서울: 한울림스페셜. (원저: 1996년 출판).

